

## 해안사구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요? [자연놀이 천을 활용한 솔방울 던지기]

개발자	김도희(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
<p>해안사구에서 서식하는 동·식물에 대해 자주 볼 수 있는 것들은 큰 원으로, 보기 어려운 것들은 작은 원으로 표현된 자연놀이 천을 활용한 놀이이다. 솔방울을 각기 다른 크기를 가진 사진에 던져서 맞추는 놀이를 통해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깃대종(표범장지뱀), 해안사구와 해안사구 동·식물 보호의 필요성을 설명해준다.</p>	
활용대상	유아~초등학생
활용시기	사계절
준비물	자연놀이 천, 솔방울
소요시간	20분
제작비용	약 5,000원(천, 잉크-자체 실사출력)





운영사진1\_놀이 진행



운영사진2\_메시지 전달

### 운영방법

1. 참여자에게 주변에 떨어진 솔방울을 1인당 1개씩 주워오게 한다.
2. 놀이방법을 설명한다.
  - 1~2인씩 차례대로 솔방울을 던져 마음에 드는 해안사구 동·식물 사진(사진의 크기가 각각 다름) 안으로 넣는다.
3. 안전하고 즐겁게 놀이를 진행한다.
4. 놀이가 끝나면 소감을 함께 나누며 깃대종(표범장지뱀), 해안사구와 해안사구 동·식물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전달한다.

### 향후방향

- 해안사구뿐만 아니라 갯벌, 곰솔 등 다양한 장소에 적용하고, 게임에 여러 가지 규칙을 적용하여 난이도를 조절함으로써 다양한 연령층에 적용할 예정이다.
- 청각적 요소를 추가하여 ‘듣고, 보고, 맞추는’ 복합적인 교보재로 활용할 예정이다.

### 참고내용

#### ※ 깃대종

깃대종이란 특정지역의 생태·지리·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상징적인 야생 동·식물로서 사람들이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종을 말한다. 깃대종이라는 표현은 그 지역의 생태계를 회복하는 개척자라는 이미지를 깃발의 의미로 형상화하여 깃대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다. 태안해안국립공원의 깃대종으로는 매화마름, 표범장지뱀이 지정되어 있다. 표범장지뱀은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해안사구에 서식한다.

### 주의사항

- 우천 시 실내에서 할 수 있도록 미리 솔방울을 준비해두면 좋다.
- 과도한 동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한다.